

소설 속에 되살아나는 역사인물

진시황 · 람세스 · 박정희 등 변혁기 인물들

역사적 전환기에 변혁을 주도했던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이 여럿 나와 최근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희 · 진시황 · 람세스를 각각 주인공으로 한 《인간의 길》(이인화, 살림), 《짐은 이것을 역사라 부르리라》(김현기 · 유정아, 한겨레신문사), 《람세스》(크리스티앙 자크, 문학동네)가 그것. 이 책들 가운데는 출간되자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뛰어오른 책도 있어 독자들의 새로운 성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우선 변혁기를 살면서 국가의 흥흥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그런 만큼 삶도 파란만장하다. 정치적 견해차로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적들과, 한 축으로는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복종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친구와 조력자들, 수많은 민중과 지식인의 필박, 권력을 따르는 부나비들과의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소설가라면 한뼘쯤 그려보고 싶은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 수 없다.

변혁기에 국가중흥 이룬 카리스마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 불리는 람세스 2세는 이런 인물의 전형이다. 그는 기원전 1279년부터 1212년까지 67년간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이부 심벨 신전 · 룩소르 신전 등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축물을 이집트 전역에 세운 건축왕이며, 90세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왕비에게서 130명의 자녀를 얻은 정력의 소유자다.

소설은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다. 첫 장면은 양부의 손에서 자란 람세스 2세가 14세의 나이에 친부 세티 앞에서 왕자로서의 능력을 시험받는 장면. 인간의 능력을 넘는 야생 황소와의 격투에서 비록 황소를 쓰러뜨리지는 못하지만 ‘공포’를 이긴 것으로 간주되어 후계자로 인정받는다. 이 장면은 뒤이어 펼쳐질 수많은 난관과 적을 상징한다.

위대한 인물은 그에 비견되는 인물과 어울리는 법. 유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와의 진한 우정, 트로이전쟁이 끝난 뒤 이집트에 머문 호메로스와의 교분도 책읽는 재미를 배가시키고, 정열적인 이세트와 우아한 네페르타리와 사랑도 파란만장 생애의 한



청년 시절의 람세스 2세.

부분을 이룬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재미는 책 곳곳에 녹아 있는 박물지적 지식에서 온다.

이집트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까지 《이집트인 샹폴리옹》 《태양의 여왕》 《투탕카멘 사건》 등의 소설과 에세이를 발표한 저자는 고대문헌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신화, 종교, 당시의 풍속적 사실까지 고스란히 되살려 놓았다.

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처럼 작가가 그 방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진시황을 소재로 한 《짐은 이것을 역사라 부르리라》나 박정희의 일대기를 그린 《인간의 길》의 작가는 크리스티앙 자크처럼 학위를 받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랜 준비기간과 방대한 자료, 꼼꼼한 분석을 통해 역사 속의 공간과 시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

진시황의 유언에서 제목을 따온 《짐은 이것을...》의 경우, 중국의 《사기》를 면밀하게 살핀 후 모순이 되는 부분을 소설의 모티브로 삼았다. 지은이들이 지적인 《사기》의 모순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통일 진제국의 힘없는 몰락이고, 다른 하나는 진시황 사후 호해의 황제 등극과정이다. 저자들은 진제국처럼 수백년의 전통을 가지고 사상가에 의해 통치이념이 잘 정비된 나라가, 통치자가 죽은지 수년만에 민란 때문에 멸망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원을 통일할 만큼 막강한 진의 군대가 타격을 받을 만한 거대한 전투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호해의 등극 역시 미심쩍다. 법가사상으로 지배되던 진에

서 호해가 등극하려면 음모를 꾸밀 지지가 반이나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자들은 모순의 틈새에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끼워 넣는다.

중국 역사는 이 책의 주인공인 여불위와 진시황을 형편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여불위는 수완 좋은 장사꾼이요, 여불위의 사생아인 진시황은 만리장성 · 아방궁 · 분서갱유 · 거대한 무덤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폭군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여불위와 진시황의 강력한 통치와 주변국 정복이 중원에 뿌리깊게 남아 있던 ‘배달의 혼’을 지우고 중원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라고 파악한다. 배달족인 복희, 신농씨를 화하족(華夏族)이라고 기술한 여불위의 《여씨춘추》가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진시황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중원제국을 건설하는데 실패한다. 뒤이어 위화방의 책사들이 추대한 호해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중원대란이 발발한다.

그 결과 성립한 한제국은 중원문화의 중추가 되고, 배달세력과 배달의 역사는 말살 · 왜곡되고 말았다는 논지다. 황당한 민족주의로 치부될 수 있지만 역사의 틈새를 파고든 상상력과 중국사에 대한 지식이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영웅사관에 충실한 소설들

박정희의 일생을 다룬 《인간의 길》역시 저자가 “죽어서 신이 내게 무엇하던 사람이었냐고 물으면 ‘인간의 길’을 썼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할 만큼 공력을 들인 소설이다.

작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박정희 관련 자료는 물론, 일본과 만주에서 나온 거의 모든 저서를 읽고 관련이 있는 사람 80명을 인터뷰했다.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작가는 “사형수, 남로당 활동, 혁명지도자 등 다양한 얼굴을 가진 ‘천성적 모반자’인 그를 소설가라면 누구나 한번 다뤄보고 싶지 않겠냐”고 말한다.

《인간의 길》3권에 이어 《혁명의 길》, 《나의 조국》 3부작 10권으로 완성될 이 소설은 아직 2권 밖에 출간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중국의 신화를 원용할 정도로 영웅사관에 충실해 작가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이번에 나온 책들은 모두 변혁을 주도하고 중흥을 이뤘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 사회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진단도 있다. 하지만 역사인물의 소설화가 소재의 빈곤을 느끼는 소설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세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선도의 창시자인 청산고한영의 삶을 소재로 한 송기원씨의 《청산》(창작과비평사), 조선후기의 실재인물 장씨 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선택》(민음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박덕규씨는 “역사인물의 소설화뿐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의 변호사나 의사소설 · 과학소설처럼 일반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문소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현주 기자